

은퇴 공무원·주부·직장인 “소설의 아픔 손 끝으로 다가와”

태백산맥문학관 필사본 기증 독자 감사패 전달식 원고지 1만6398매...조정래 “작가로서 큰 행복”



“무엇보다 ‘태백산맥’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 문장 쓰기,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국어 공부는 덤이었다. 여기에 행간에 녹아 있는 주인 공들의 아픔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2002년 처음 필사를 시작 2014년 12월 1일까지 대장정을 마친 위승환(60) 태백산맥문학관 명예관장은 지금도 옮겨 쓰기 당시의 감동이 남아 있다.

21일 보성군 별교읍 태백산맥문학관에서는 ‘태백산맥’ 전권 필사본 기증 독자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작가 조정래와 기증자, 태백산맥 문학도 임,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기쁨을 나눴다.

위승환 씨가 처음 필사를 시작한 때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보성군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러나 도중에 바쁜 업무와 팔을 다치는 바람에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2013년 공직에서 명퇴를 하고 그 해 8월 25일부터 재기한 필사는 모두 625일이 걸렸다. 하루 평균 5.6페이지, 200자 원고지로 평균 26매, 모두 1만6398매에

달한다.

위 씨는 젊은 시절부터 ‘태백산맥’ 매니아였다고 한다. 마니아로서, 남도 출신으로서 필사를 하는 것은 의무로 다가왔다.(지금까지 필사를 완료한 이들은 서울 1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북 1명, 경남 1명이다.)

“작가의 고향이라는 별교에서 더욱이 작품 배경이 되는 보성에서 베껴쓰기를 한 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맘에 걸렸다. 대하소설 10권에 담긴 언어가 질박한 남도 사투리 아닌가. 최소한 남도 출신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들었다.”

위 씨는 오래 전부터 ‘태백산맥’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었다. 1997년 보성군 문화관광 계장으로 재직 시 ‘태백산맥 문학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공간기관에 불허가 조사를 받으면서 계획이 좌초된다. 그러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계획이 반영되었다.

부산 출신 노영희(57)씨는 2014년 4월 1일부터 올 1월 11일까지 필사를 했다.

200자 원고지에 매일 네 시간씩 옮겨 썼다. 1권 쓰고 2권 접어들 무렵 눈도 점점하고 팔도 아파 그만 들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노 씨는 “계속 하다 보면 글쓰기가 늘 것 같아 포기할 수 없었다”며 “띄어쓰기와 맞춤법 훈련에는 베껴쓰기 만큼 좋은 게 없다”고 강조한다.

광주의 또 IT회사에 근무한다는 김기호(47) 씨는 우연찮게 읽은 조정래 작가의 ‘황홀한 글 감옥’이 모티브가 되었다.

김 씨의 작업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성취감과 만족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필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올해 딸이 고3이 된다. 딸에게 아파로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 하나의 결과물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컸다.”

올해도 ‘태백산맥’ 필사를 완성한 이들이 세 명이나 나왔다. 작가로서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기증식에 참석한 조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미련한 사람이 10권이나 되는 소설을 썼는데 이것을 필사하는 사람도 못지않게 미련하다. 그러나 역사는 미련한 사람들이 바꾼다.”



21일 오전 보성군 별교읍 태백산맥문학관에서 열린 ‘태백산맥’ 필사본 감사패 수여식에서 기증자들이 조정래 작가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위승환 씨, 노영희 씨, 조정래 작가, 김기호 씨. 아래는 기증된 필사본.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네 커진다” 2~3개 묶어 대동 추진 (다洞)

행자부 대통령 업무보고 인구 감소 면사무소 통합 징계 지방의원 의정비 삭감 호남에 119 특수구조대 신설

정부는 징계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깎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구가 줄어들어도 유지해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운영하고 기초행정 단위 인동을 2~3개 묶어 ‘대동(大洞)’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상 재난은 30분 이내에, 해상 재난은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구조대가 확대 설치된다.

법무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혁신’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행자부는 의회제도 개선 방안으로 ▲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고 ▲시·도 의회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감액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2~3개 면사무소 통합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복지 중심으로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 분청-일반구-읍면동’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 중심동이 복지·안전·도시관리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일괄 제공하고 나머지 동은 지위는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4823

명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사회간접자본(SOC)·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기로 했으며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 지방공기업은 퇴출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2017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119특수구조대를 올해 충청·강원과 호남 권역에 각각 신설해 4곳으로 늘리고, 남해(중앙)에 이어 동해와 서해에도 해양구조대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육상은 전국 어디나 30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바다에서는 제주도와 중부해역(보령~태안)에 해양구조대가 신설되는 2017년까지 1시간 내 출동체계가 완성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수시, 전라선 KTX 증차 건의

“주말 관광객 폭증”...코레일 긍정 검토

엑스포 개최 이후 남해안 최고 관광지인 여수시가 급증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호남고속철(KTX) 개통에 맞춰 전라선의 증차를 건의했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관광객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인 용산 출발 기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시간대와 여수 출발 기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시간대에 현재 운행 중인 363석 규모의 KTX 산천 대신 좌석 수가 많은 935석 규모의 KTX로 대체해 줄 것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건의했다.

코레일 전남본부도 이 같은 여수시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TX 산천은 용산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하루 18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좌석이 매진될 만큼 승객 수요가 높다.

오는 3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용산역에서 여천역까지 소요시간은 2시간 40분, 여수엑스포역까지 2시간 50분 정도 소요돼 현재보다 30~40분 단축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KTX 운행 횟수가 늘어나면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어 시내권 교통난 해소와 음식·숙박·관광업체 등에 편중된 관광특수지역 내 여행업, 운수업 등으로 확산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KTX는 1일 기준 경부선에는 KTX 138회, KTX-산천이 14회 운행되고 있으며, 호남선에는 KTX 16회와 KTX-산천 28회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라선에는 KTX-산천만 18회 운행되고 있어 증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신임 대법관 박상욱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욱(59·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1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에 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췄을 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시흥 출신의 박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명돼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부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낸 뒤 2009년 퇴임했다. 이후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총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작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일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레이저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무안군 공고 제2015-60호

무안 노을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지역개발사업계획(변경) (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무안 노을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개발 사업계획(변경)(안)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2일

무 안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무안 노을길 조성사업
나.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조금나무)~현경면 용정리
다. 사업규모 : 연장 9.39km, 폭원 5.0~10.5m(차도 및 보도 10.5m, 보도 및 자전거도로 5~6m), 전망대/공원 : 1개소(A=8,210㎡), 주차장 : 6개소(A=20,985㎡)

라.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마. 사업시행자 : 무안군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1월 22일 ~ 2015년 2월 24일(20일간,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무안군청 지역개발과, 망운면사무소, 현경면사무소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5년 2월 10일(화) 14 : 00부터
나. 장 소 : 망운면사무소 2층 회의실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대상 : 당해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제출기한 : 공람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2015년 3월 4일 18 : 00까지)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라. 제출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지역개발과(☎061-450-5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